

말레이시아 근대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y of Malaysian Modern Housing

주서령*
Ju, Seo-Ryeong

고영은**
Ko, Young-Eun

Abstract

Modernization of cities and housing in Malaysia i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ading ports due to worldwide maritime trade and exchange. In cosmopolitan cities, new housing typology appeared from the influence of various ethnic immigrants and with the fusion of traditional Malaysian housing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focus on classifying the representative housing typology of Malaysia produced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cities. Through reference review and field study, Malaysian Modern housing can be classified into 2 categories.

The first one is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housing. Representative typology is shophouse. Shophouses were imported from the South Coast of China and transformed into Malaysian urban housing. And the other typology is bugalow. Bugalow is the result of the fusion of traditional timber house and Western palazzo.

Secondly is urban housing typology. Modern urbanization required maximum utilization of land and new typologies in the form of multi-story apartments, flats and terrace house were developed to accommodate new needs. In the sub-urban areas, the English terrace houses typology was adopted which is based on the British system of land sub-division. And nowadays luxurious housing typology, condominium is one of the popular housing for medium and high society.

Keywords: Malaysia, Modern Housing, Housing Typology

주요어: 말레이시아, 근대주거, 주거유형

I. 서론

이 논문은 말레이시아의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되어온 대표적인 주거유형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서구열강들의 식민지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때로는 새로운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조직과 건축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근대화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싱가폴 근대건축 연구가인 위도도(Widodo)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아시아 근대건축의 역사를 “아시아인들이 근대화되어가는 역사”라는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도시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현대 주거가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궁금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떠한 주거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레이시아의 주거문화를 이해하려는 출발단계의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월,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인터뷰, 방문조사 및 관련 문헌 수집을 실시하였다.

II. 말레이시아 근대화과정

* 정희원(주저자), 경희대 주거환경전공 교수

** 정희원, 경희대 대학원 석사과정

본 논문은 2007년도 경희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초기 도시의 형성

5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아랍, 중국, 인도인들과의 상업 교류는 말레이반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이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초기 말레이시아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그 당시 주요 도시로는 서쪽으로는 Melaka, Alor Setar가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Johor Bahru, 동쪽으로는 Kota Aharu, Kuala Terengganu, Pekan 등이 있었다. 이 초기도시에서 원주민인 말레이인들은 성곽근체에, 외국상인들은 해안가 교역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게 된다.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Melaka)의 점령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의 전형적인 농촌에 잘 정비된 도로와 광장, 조적식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1786년 말레이시아 북서쪽에 끝에 위치한 섬인 피낭(Penang)을 영국이 점령하기 시작함으로써, 영국 왕의 이름을 따 조지타운(George Town)으로 명명되고, 동인도회사의 무역기지로써 개발되게 되었다. 도시는 영국의 영향으로 그리드 형태의 도시조직을 갖추게 되고, 잘 정비된 도로, 기차, 전화통신망을 갖추게 된다. 중심가에는 정부 행정건물들이 위치하고, 이 주변에는 스텝하우스가 건립되고, 도시의 가장자리에는 유라시아, 중국, 인도 무슬림 등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의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2. 쿠알라룸푸르의 성장

쿠알라룸푸르는 1859~1939년의 80여년 동안 내륙에 위치한 작은 상업도시로부터 시작하여, 인구 12만에 이르는 말레이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클랭강(Klang River) 줄기를 이용해 주변 주철광산과 연결하는 중심으로서 개발되었다. 쿠알라룸푸르는 1880년 실랭거(Selangor)에 있던 행정수도가 클랭(Klang)에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로 이전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 새 정부청사와 방갈로가 강의 서쪽 유럽인지역(European quarter)에 많이 건설되었으며, 동쪽에는 건물들이 목조건축에서 조적건축물로 대체되게 되었다. 도로폭도 확장되어 도시의 화재나 건강 위협을 줄여주게 되었다. 1890년대, 위생성이 조직되어 도로를 유지하고, 새 건물의 신축을 규제하고, 야간에 인분을 치우거나 거리 조명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도시는 세장비가 높은 대지의 형태로 분할되었는데, 이 때 'sanitary lane'라는 서비스용 도로를 후면들 사이에 가지게 되었다. 도축장, 주석공장, 벽돌가마 등 비위생적인 시설들은 도심에서 철거되고, 도로와 교회, 학교 등이 건립되기 시작한다.

1919~1939년 사이의 전쟁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축양식면에서 발전이 적었다. 이때부터 건축양식은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flat으로 계획되었던 The Hotel Majestic(1932)가 건립되었고, 콘크리트 구조와 조적식벽, 그리고 기하학적인 아르테코 플라스터 외부를 가진 Anglo-Orinetal Building(1936)이 건립되었다. 1920년대까지 건물의 행정규제는 건물의 위생과 안전만을 승인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1921년 The Federated Malay States town planning dept.의 건립과 더불어 쿠알라룸푸르는 더욱 합리성에 근거하여 재정비되기 시작한다.

1920, 3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자국주의 및 내셔널리즘에 대한 갈망은 말레이시아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젊고, 역동적이며, 다국적인 국가이미지를 시각적인 상징물로 제시하려는 시도는 고전적 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르테코 스타일의 건물을 등장시키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토속적인 건축을 응용하는 절충주의적 양식의 시도들도 동반되었다. 독립이후 행정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건립되는 학교, 병원, 사무실, 대학건물 등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볼 수 있다.

3. 신도시 개발

전후 경제회복시기에 쿠알라룸푸르의 폭발적인 인구집중을 해결하고, 점령시기 동안 방만하게 관리되었던 무허가 주택(squatter)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페랑링 자야(Petaling Jaya)를 필두로 하여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신도시는 영국 신도시개발에 필적할 만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계획원리에 의거하여 디자인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신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클랭 벨리(Klang valley)에 있는 수방자야지역(Subang Jaya Township)으

로, 마치 새로운 주거유형의 전시장 같았다고 한다.

80년대 초반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주택수요를 급증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택대량 공급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대량공급은 저가주택과 아파트로부터 중소득층을 위한 테라스하우스(terrace house), 세미-디(Semi-Detached housing)과 플랫(flat),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고급 방갈로와 사치스러운 콘도미니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주거양식을 정착시키게 된다.

III. 전통주거의 변형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housing)

1. 솽하우스(shophouse)

건축학에서 정의되는 '솽하우스(shophouse)'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도시의 중국인 지구에 있는 연립형 도시주택을 가리키며, 비슷한 형태를 갖는 집이라도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경우처럼 상점이 있는 경우를 '솽하우스', 상점이 없는 경우를 '타운하우스'라고 분류하기도 한다.¹⁾ 19세기 중국 남부지역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도시에 생겨난 주거형식으로 전통적으로는 1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2층은 주거로 사용된다. 기본적인 형태는 세장비가 긴 격자형태의 필지로 인하여 전면 폭은 6~7m 정도, 길이는 30m(때로는 60m)에 이르며, 세대 간에 조적벽을 분할하였지만 파사드는 연속된 형태를 띠고 있다. 주택내부에는 내에는 통풍을 위한 중정이 있고, 가로변 1층의 전면부는 공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파이브풋웨이(five-foot way)'라는 연속된 아케이드를 두고 있다.

초기의 말레이시아 솽하우스는 페낭에 조지타운 등 초기 식민도시에서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솽하우스는 아탑(attap)지붕과 목구조를 가진 형태에서 1826년 이후에는 기와를 사용한 현재의 형태로 변화하였다.²⁾ 또한 말라카의 솽하우스는 전면은 가로에 면하고, 후면은 하역을 위한 물길에 접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중국에서 발전된 도시주거유형이 말레이시아에 토착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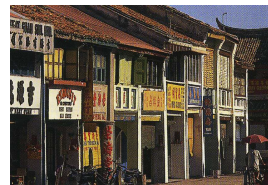


그림1. 피닝(Penang)의 솽하우스(좌), 타운하우스 모식도(우)
(출처: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1998)

1) Chen Voon Fee(1998),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Singapore:Archipelago Press, pp90~93; 전봉희, 김지홍(2007). 중국계 솽하우스 비교를 통한 베트남 나옹의 특수성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서 재인용

2) 전봉희, 김지홍(2007) 앞 글

2. 방갈로(bungalow)

‘방갈로’라는 단어는 짚으로 된 지붕과 베란다가 있는 목구조 주택이라는 의미의 ‘방갈하우스(Bengal house)’로부터 유래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방갈로’라는 단어가 발견된 것은 1793년 프란시스 라이트(Francis Light)가 유언에서 “bungalow in George Town’을 부인에게 남긴다”고 한 자료라고 한다.³⁾ 이시기의 방갈로는 피낭에 정착하는 초기 이민자들이 동·서양의 다양한 주거전통을 가져와 말레이시아 현지 토착화하면서 발전되었다. 전형적인 말레이시아 방갈로는 널찍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목재와 벽돌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면부에 마차가 정차하고, 비를 맞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박공지붕이 있는 현관매스가 전면부에 돌출한 형태이다. 주택은 I 형태의 평면으로 단순하며, 좌우대칭이다. 특징은 입면에 바닥에서 천정까지 목재덧문이나 난간이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전통 목조주택에서 유래된 것으로 덥고 습한 기후에서 환경에 적응하고자 개발된 주거의 특징이다.

19세기중반 이전의 방갈로들은 1,2층 입면이 단일이나 같은 재료로 처리되었지만, 1836년 제임스 로우(James Low)가 발간한 ‘The British Settlement of Penang’에 묘사된 방갈로는 1층은 벽돌과 모르타르로 지어지고, 2층은 목재로 건축되고 지붕은 기와를 사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까지도 건물바닥은 지면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Jawi Peranakan⁴⁾들이 1층은 벽돌 기둥으로만 구성되고 목재로 구축된 2층이 주거로 사용되는 좀 더 전통 주거유형에 가까운 방갈로를 만들어낸다. 이외에도 1890년대 후기 빅토리아 시기에는 주철 창문난간이나 예칭 유리, 통풍창, 아라베스크 장식등이 파사드에 나타난다.

이렇듯 방갈로는 동시기에 유행하는 건축양식과 이민자들의 출신에 따라 토착화되는 양상들이 건축형태와 재료, 장식적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 (좌)피낭의 초기 방갈로 (중)앵글로-인디언 방갈로 (우)20세기초 방갈로

(출처: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1998)

IV. 도심형 주거유형 urban housing typology

80년대 초반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주택수요를 급증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택대량 공급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공급방식⁵⁾과 별도로 주

거유형적으로 분류해본다면 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링크하우스), 세미-디, 클러스터, 콘도미니엄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중 상기의 주거유형 중 세미-디(6%)와 테라스하우스(40%)가 말레이시아 주거의 약 46%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이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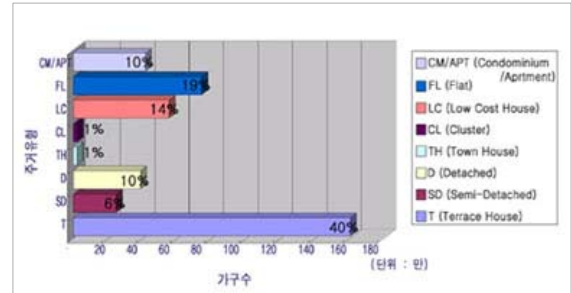


그림 3. 말레이시아 주거유형별 세대수(출처:CEIC, 2007.9통계치)

1. 중·저밀도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정착한 중·저밀도형 주거지는 정형적인 그리드 패턴으로 획지를 분할 계획한 단지계획 방식이 일반적이다. 단지는 중심에 상가, 학교, 사원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주간선도로와 지선도로로 도로를 체계화하였다. 선형 필지를 분할하여 개별 필지(lot)를 제공하고, 선형필지의 단부에는 다른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고가의 주택을 배치시키는 방식이다. 개별 필지 전면의 지선도로를 통하여 주택전면에 주차를 하도록 하며, 필지 뒷면에는 서비스도로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1) 단독주택(detached house)

대지를 수반한 중대형규모의 단독주택을 일반적으로 명명하는데, 일반적으로 방갈로라고 통용되기도 한다. 2,3층으로 구성되는데, 2층 이상인 경우에는 1층에 거실, 식당 등이 위치하고, 2,3층에는 4개 이상 방이 있으며 주차시설과 조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 대지의 크기, 주택의 규모, 시설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 개발되는 신 주거지역에서는 보안시설, 수영장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 linkhouse)

말레이시아 도처에 있는 주거의 형태는 개인주호가 연결되는 테라스 하우스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링크하우스(linkhouse)’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층 또는 2층의 형태로서, 한 열의 길이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m를 넘지 않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14~18 개의 주호가 한 줄로 건설된다.

또는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때로는 공공에 의하여 개발되기도 하지만 자유시장원리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거이다. ‘공영주택’은 저가주택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대량 공급 주택이다.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의는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 Chen Voon Fee(1998), 앞 글, pp94~95

4) 인도(Indain)와 말레이 혼혈

5) 말레이시아의 주택공급은 주택가격과 공급방식에 따라 ‘민영주택’과 ‘공영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영주택’은 중산층

각 단위주호는 일반적으로 130~170 m² 정도의 면적이다. 단부에 있는 단위주호는 일반적으로 중간에 있는 대지에 2배의 면적이다. 연립이라는 배치의 제약으로 인하여 단위주호 평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식당이 위치하고, 2층에는 전면에 주침실 후면에 침실2개가 위치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제약된 평면배치는 종종 불법증축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몇 현지 전문가들은 테라스하우스가 말레이시아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이러한 자발적 주거조절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세미-디(semi-detached housing or duplex house)

2호의 주택이 벽을 공유하는 2호 연립형태의 공동주거 유형으로 각 주호는 개별 정원을 가진다. 주로 현지에서는 '세미-디(Semi-D)'라고 명명되는데, 단독주택의 자유로운 평면구성과 테라스 하우스의 대지의 효율성을 결합한 형태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주거유형 통계에서 6% 정도를 차지한다. '세미-디'의 경우 건물층수는 단층이거나 2~3층에 이르는데 통계현황에 따르면 각각 3% 정도를 차지한다.(그림3)

표 1. 중·저밀도 주거유형

주거유형	단독주택 Detached House (Bungalow)	테라스하우스 Terrace House (Link House)	세미-디 Semi-Detached Housing
배치도			
평면도			
전경사진			

2. 고밀형

1) 클러스터 하우스(cluster house, quadrant double story house, cluster-link house)

오마(Omar)(1990)의 연구⁶⁾에서는 'cluster-link double story house'를 헥타르 당 123호 이상이 밀집한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luster house & quadrant double story house'는 4개의 주호가 중앙에 중정을 두고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두 주거유형을 분리·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형적 근거로 판단해본다면 주택의 층수는 다를 수 있지만 4호 연립을 주 형태로 주거유형으로 함께 분류할 수 있다. 즉 고밀도의 주거유형으로써, 4개의 단위주호가 중앙에 중정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세미-디'보다 집약된 형태로 개발한 형태로 저가주택(low-cost housing)으로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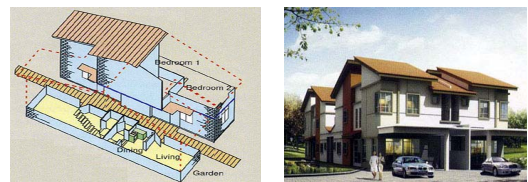


그림 4. (좌)Cheras 저가형 클러스터하우스 개념도(1970년대중반)
(출처: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1998)
(우) 클러스터 하우스 투시도: Setia Alam 분양자료(2008)

2) 플랫/아파트

오마(1990)의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을 '플랫'을 제시하고 있으며, '걸어올라갈 수 있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를 가지는 고층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우리나라에서는 편복도형의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는 영국식으로 '아파트'라는 용어보다는 '플랫'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택통계표(그림3)에는 '플랫'을 저가형(10%)과 일반형(8%)으로 구분하고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아파트(service apartment)'(1%)로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주거유형적으로는 플랫과 아파트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나, 추후 정확한 정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고밀로 개발되며, 단지 내 기본 생활시설만 갖춘 공동주택으로 편의시설이 콘도와 크게 다르다. 대부분 현지 말레이와 서민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다.

6) Saari Bin Omar(1990), Class, Ethnic Relations and the Unconventional Housing in Malaysia, Master Thesis, Architectural Association Graduate School, London, pp141~143

7) Saari Bin Omar(1990), 앞 글, pp141~143



그림 5. 쿠알라룸푸 캄퐁(Kampoong)지역의 플랫 사례

3) 콘도미니엄(Condominium)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콘도미니엄은 프라이버시와 방법, 고급성 측면에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듯하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동안 콘도미니엄 구매는 과열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초기에 개발된 가장 일반적인 콘도미니엄은 일반적으로 3~4층 형태이고 외부공간의 조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형태였다. 최근 도심에서는 주상복합형으로 쇼핑센터와 복합화하여 개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며, 교외에도 수영장, 바비큐 시설 그리고 테니스코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콘도미니엄 건설이 일반적이다.

콘도미니엄이나 플랫(아파트)은 그 출발이 서구식 주거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지역적 풍토와 생활양식과도 괴리가 있었다. 세탁건조는 어쩔 수 없이 발코니에서 행해질 수 밖에 없었고, 자연환기를 중요하지 하는 생활습관은 포기되고, 에어컨 설비가 필수화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복도에 면한 실은 중정(airway)에 면하게 하여 자연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였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복도에 면한 창들은 블라인드 형으로 설치하여 열어놓아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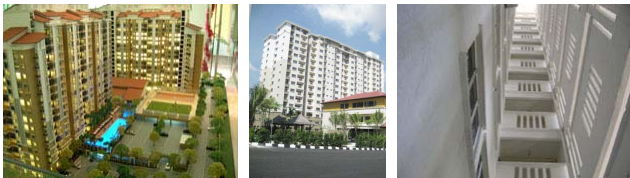


그림 6. (좌)Villa Park 모형도 (중/우) Villa Pavilion 전경사진/중정

V. 결론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주거에 대한 초기단계의 연구로써 현지답사 및 참고문헌 고찰을 통하여 간략한 말레이시아의 주거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좀 더 정확한 통계 및 참고자료를 통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나, 추후 세부 연구과제 추출을 위한 출발단계의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말레이시아의 주거는 크게 보면 2가지 경로를 통해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의 근대화과정에서 중국 및 서구 각국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변형 과정으로 정의내려 볼 수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문화와 외부 세력의 주거문화와의 절충과정을 통하여 정착된 주거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슝하우스와 방갈로를 들 수 있

다.

둘째는 도심형 주거유형으로 도시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동반되는 대량주택공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 2호연립주택, 클러스터하우스, 플랫(아파트),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본적으로는 서구식 주거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슝하우스와 방갈로와 같이 전통주거의 변형적 특성들도 전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근대주거는 다른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구식민주의자들을 통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산업화·도시화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대량주택공급에 따른 서구 근대주의적 주거양식의 도입을 거쳐 현재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갖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현대주거는 급속한 개발원리에 밀려 슝하우스의 흔적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는 하나, 고층·고밀의 일방적 지향성보다는 저층·중밀의 친환경적·친공동체적 주거유형에 대한 가치 인정과 더불어 끊임없는 개발과 도입이 돋보인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본다.

참고문헌

1. 전봉희, 김지홍(2007), 중국계 슝하우스와 비교를 통한 베트남 나용의 특수성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Chen Voon Fee(1998),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5,Archipelago Press, pp.90-91, 94-95.
3. J. M. Gullick(1994), Old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4. Saari Bin Omar(1990), Class, Ethnic Relations and the Unconventional Housing in Malaysia, Master Thesis, Architectural Association Graduate School, London
5. Johannes Widodo(2003), Modernism in Singapore, DOCOMOMO, N.29